

# 한일 근대 이행기, 양국 최초의 여성소설가 비교연구\*

이 현 준\*\*

1. 서론
2. 김명순과 히구치 이치요: 다른 시대, 같은 삶
3.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과 한국의 근대이행기 속에서 최초의 근대 여성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얻은 김명순과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에 대한 비교연구를 담고 있다. 당시 두 여성작가가 처한 시대상황은 이들 여성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여성해방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일꾼들의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김명순과 이치요의 경우처럼,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등장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여성작가의 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명순과 이치요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의 극찬 속에 등단하게 된다. 시대적으로는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원

선후가 분명한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양국 근대이행기라는 같은 사회상황에 처해있던 만큼 그들이 양국의 문단사에서 겪은 일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특히 남성작가들만 참여하던 동인지의 영입제안을 받은 최초의 여성 작가들이기도 했고, 이어 벌어진 영입거부와 강제탈퇴 사건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우울한 상황을 통감해야 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던 두 작가의 작품들은 마치 서로의 삶을 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공간을 살아간 두 작가의 삶과 작품이 보여주는 놀라운 이러한 공통점은 이 연구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 김명순, 허구치 이치요, 근대이행기, 근대여성작가, 근대소설

## 1. 서론

그동안 한국최초의 근대 여성소설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 없이 있어왔다.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나혜석(羅蕙錫, 1896-1948), 김일엽(金一葉, 1896-1966) 등의 여성작가들이 그 논의의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의 연구 상황에서 본다면 이들과 동갑내기였던 김명순(金明淳, 1896-1951?)이 최초의 근대여성소설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최남선이 창간하여 주관하고 있던 『청춘』의 현상작품모집에서 「의심의 소녀」가 입선됨으로써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셈이었다. 더구나 당시 조선문단은 소설로 국한한다면 이광수 1인 체제였던 만큼, 한국 문학사에서 소설작가의 저변을 넓히는 최초사건<sup>1)</sup>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

1) 객관적인 작가 등용문이 없던 시절, 『청춘』에서 최초로 ‘현상문예모집’을 통해 3

김명순의 위치는 ‘최초 여류작가’ 이상의 것이었다. 정월 나혜석이 일본 유학시절 「부부」라는 작품을 발표한 것<sup>2)</sup>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미 발굴된 상태이므로 김명순의 지위는 여전하다.<sup>3)</sup> 당시 그녀와 함께 등단한 인물로는 방정환, 주요한, 이상춘 등이 있는데, 후에 이들의 명성을 생각한다면 그녀의 등단이 대단한 일이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반면 일본 최초의 근대 여성소설가에 대한 논의의 답은 의외로 명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최초의 근대 여성소설가로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 이하 이치요로 표기)를 말하는데 이견을 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최초로 원고료를 받고 소설을 게재했던 프로 여성소설가였으며, 특히 일본 최초의 여성 전업작가였다는 점에서 그 지위를 재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그녀가 소설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지낸 삶을 이어갔다는 점은 그녀의 일기<sup>4)</sup>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더구나 동시대를 살았던 미야케 가호(三宅花圃)<sup>5)</sup>, 고가네이 기미코(子金井喜美子)<sup>6)</sup> 등의 여성작가들과 비교

---

명의 소설가를 등단시킨 것은 문단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 『매일신보』 등에서 글을 모집하긴 했지만 독자투고나 문학과 관계없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 2) 서정자, 「나혜석 연구: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3) 나혜석의 작품이 발굴된다 할지라도, 그의 작품이 과연 근대소설의 특징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김명순의 ‘한국 최초의 근대여성소설가’라는 호칭은 유효할 듯 보인다.
- 4) 16세인 1887년부터 25세인 1906년까지의 쓴 일기이다. 일기는 각각 소재목을 지니고 있는데, 몸에 걸친 낡은 옷(1887), 새싹 사이로(1891), 일기 하나(1892), 티끌에 묻혀(1893), 먼지 속 일기(1894), 물위에서(1896), 물 위로(1895-1896), 명경지수(1896)가 그것이다. 이치요의 일기는 그녀 소설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작품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개인기록을 넘어서 메이지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 5) 미야케 가호(三宅花圃)는 같은 가숙 ‘하기노야(萩の舎)’의 선배로, 그녀가 쓴 소설 『덤불속의 피꼬리(藪の鶯(鶯の鶯))』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이치요는 전업작가의 길로 뛰어들게 된다.
- 6) 고가네이 기미코(子金井喜美子, 1871-1956). 근대 일본의 시인. 일본근대시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할 때 작품의 수준이나 현대까지 이어지는 작가생명력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2004년 이치요의 초상화가 5000엔권의 주 도안으로 결정되면서 이치요와 그녀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치요 열풍<sup>7)</sup>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현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과거가 아닌 현재로 ‘소설가 이치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명순과 이치요는 한일 양국 최초의 근대여성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지닌 작가들로 평가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향로는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불평등한 신분사회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넘어가는 근대이행기는 겉으로는 여성들에게 기존의 사회제도나 도덕을 부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를 찾는 작업을 통해, 오래된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정신에 바탕을 둔 믿음으로 개화기 이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양국의 신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식변화를 넘어 실제생활에서의 활동 범위도 넓혀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근대정신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글로 표현하게 하는 ‘근대문학’에 눈뜨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근대정신’과 ‘근대문학’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김윤식의 말을 빌자면, 근대정신이란 자체 내의 모순에 대한 극복의지로 나타난 정신이 될 것이며, 근대 문학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당시 여성들은 자체 내의 모순을 이겨내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sup>9)</sup>을 깨달았고,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차

7)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치요가 죽은 매년 11월 23일이 되면 도쿄에 자리한 ‘이치요기념관’에서 이치요제(一葉祭)가 열린다. 사람들은 이치요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이치요의 작품 낭독대회를 갖기도 한다. 이외에도 문학제, 낭독회 등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이치요의 이름으로 거행되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을 전후로 이치요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번역·간행되어 관심을 받았다.

8)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16쪽.

9) 한국의 경우, 일본유학 중인 여학생이 주축이 된 『여자계』와 김일엽이 1920년에 창간한 『신여자』를 통해 여성교육, 자유연애 등을 강조하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원에서 자유연애를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억압이 옳지 않은 결혼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면, 자유연애의 강조는 근대정신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근대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운동은 당시 개화기 이전의 봉건적 사회 제도를 저변에서부터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혁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할 경우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불행하게도 근대이행기라는 과도기적 불확실성과,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을 주변인으로 전락시켰던 남성들에 의해 그녀들의 혁명은 결국 실패한 셈이 된다.<sup>10)</sup> 하지만 근대이행기를 살아갔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실현되리라 믿었을 것이며,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19세기 말을 살았던 이치요나, 20세기 초를 살았던 김명순을 같은 방식으로 옴아매고 억압했다. 두 사람을 온건적 혁명주의자와 급진적 혁명주의자로 구분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성들에게 주변인 취급을 받았다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각각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인생이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집중했다. 두 작가가 처해있던 한일 양국의 근대이행기의 문학적 배경을 살피고, 그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문학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남성중심의 봉건적 잔재를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는지도 살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내놓은 작품 속에 투영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분석하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면서도 유사한 외면적 억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일인에 가까운 내면적 고민을 해왔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

10) 근대 이행기의 신여성들의 노력과 희생이 현재의 한국사회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2. 김명순과 히구치 이치요: 다른 시대, 같은 삶

### (1) 근대 이행기 속 여류작가의 숙명

히구치 이치요와 김명순은 시대적으로는 2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근대화가 늦었던 조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이 처해있던 시대적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문학적 배경만 살펴보더라도 이치요가 활동을 하던 1890년대 초의 일본은 사회·정치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근대화가 문학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기<sup>11)</sup>였고, 김명순이 처녀작 「의심의 소녀」를 발표하던 조선의 1910년대 후반은 이광수의 『무정』을 시작으로 근대소설이라 칭할 수 있는 작품들이 속속 나타나던 때였다.

이치요가 활약했던 메이지 20년대는 구시대와 신시대가 교차하는 특수한 시대였고, 근대문학으로 보면 성립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인쇄 기술의 발달과,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독자층의 확대는 근대문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맞물려 쓰보우치 소요(坪内逍遙, 1859-1935)의 『소설요론(小說要論)』<sup>12)</sup>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젊은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특히 이 책은 지나치게 도식주의적이고 계몽적인 소설을 부정하고 사실주의에 입각해 소설을 창작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당대 젊은 신진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론은 후에 사실주의 수법을 강조한 김동인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근대작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이 시기는 여성작가가 문단에 등장

11) 1887년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 1864~1909)가 연문일치, 리얼리즘에 입각한 소설인 『뜯구름』을 발표하게 된다. 오늘날 일본 근대 소설의 초석을 놓은 작품이라 평가 받는 이 작품 이후 일본에선 많은 근대소설이 발표되게 된다.

12) 1885년부터 1886년까지 송월당(松月堂)에서 간행했고, 1886년 5월 상하 2권으로 합본해서 간행했다. 2권, 9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설신수(小說神髓)』라고도 한다. 신소설의 원리와 작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상권은 소설의 원리론이고, 하권은 소설의 기술론이다.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한데, 이치요도 이 시기에 일본문단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던 것에 반해 이치요의 이력은 매우 특별한데가 있었다. 다른 여성작가들이 서양문학을 접하고 그 영향 하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면, 이치요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고전에 문학적 기반<sup>13)</sup>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점은 당시 신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상류계급이었던 것에 비해 이치요는 한때 ‘요시와라(吉原)’<sup>14)</sup> 유곽주변의 마을로 옮겨 살아야 할 만큼 빈곤했다. 하지만 그녀가 극복해야했던 것은 낮은 학력과 가난뿐이 아니었다.

일본의 1890년대는 제국의회가 개설되면서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근대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차별이 존재하는 불안한 시기였다. 겉으로는 여성해방이 식자층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었지만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던 여성의 위치는 지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근대과정에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여자의 본분’에 바탕을 둔 규범이 요청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규범이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여성들의 활동은 사회전반적인 편견과 차별에 의해서 위축되었고, 여전히 강력한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 사회 속에 단도 하나 손에 쥐지 못한 채 무방비로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근대적 여성작가의 등장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권신장을 호소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많은 신식 여학교가 신설되었고,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당한 위치를

13) 14세 때 나가자마 우타코(中島歌子, 1844-1903)가 운영하는 ‘하기노야(萩の舎)’에서 와카와 서예, 고전을 배우기 시작해서 ‘하기노야’와의 인연은 숨을 거둔 해까지 계속된다. 이치요의 일기를 보면 그녀가 자신의 소설 스승이었던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1-1926)’의 영향으로 조선의 고전인 ‘구운몽’을 필사하는 모습도 보인다.

14) 일본 전통적 공창제(公娼制)에 의한 유곽거리 중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공창제가 폐지(1946)되던 해까지 영업이 계속되었다. 일본 도쿄의 다이토구(臺東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식하면서 기존의 억압적 사회제도로부터 해방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직업의식이 낮고 임시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남성들에 의해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다. 문학계로 바뀌 말하면 당시 여성작가들은 사상이 없고 창조의욕이 결여된다는 편견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치요는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근대이행기 속에서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발언할 수 있었던 드문 작가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여성작가들처럼 서양문학에 대한 배경이 강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불우했던 그녀가 이렇게 어느 수준이상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명순과 달리 여성해방에 대한 서구의 이론을 접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발표한 작품들의 인물도 직접적으로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인물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첩으로 가야 하는 여자, 하녀, 창녀, 남자를 파멸 시키는 악녀, 그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한 광녀, 남편의 학대에 이혼하고자 하는 여자, 남편을 배신하는 여자 등 그녀 작품 속 여주인공들은 근대이행기의 일본 사회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온건하긴 하지만 사회에 대한 항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사회를 있는 그대로 철저히 묘사함으로써 그 이면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사회 속에서 피해자로 지위되어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명순은 이치요보다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비교대상이 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명순이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191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1890년대의 일본사회와 매우 유사한 시기였다. 바로 한국의 근대이행기였던 것이다. 이때 한국은 사회계몽운동 일환으로 여성교육이 당시의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떠올라 논의<sup>15)</sup>된 지 이미 20여년이 지난 후였다. 일본처럼 전국 곳곳에 여성

15) 1896년에 설립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조선여성들이 근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물론 인권과 민권을 주장하는 여성해방의 차원이 아니라,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을 위한 신학교가 생겼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맡고자 갈망하는 여성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의 여성교육을 지지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은 애국계몽의 하위개념으로 다루어졌다. 바로 여성이 제대로 된 근대교육을 받아서 자녀를 훌륭한 국민으로 키우고 남편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근대과정에서 있어서 ‘아내’,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여자의 본분’에 바탕을 둔 규범이 요청되었던 일본 근대이행기 사회의 답습이었다. 더구나 그 취지와 상관없이 여성교육 자체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바로 여성교육이 사회에 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었다. 여성해방론과 조혼·축첩 청산론이 대두되고 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성들의 사치, 문란한 정도, 가정에 대한 월권 등을 거론하며 여성교육이 이러한 상황을 가져왔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순과 같은 신여성은 동경의 시선과 멸시의 시선을 함께 받아야 했다.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일어나기 십상이었고, 그 평가조차도 오해와 곡해, 그리고 의도적인 각색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었다. 김명순의 답대함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삼천리』와 같은 대중 잡지와 신문의 가십거리<sup>16)</sup>로 오르내리면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sup>17)</sup> 그녀는

---

후세양성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류는 여성 자신이 주체가 된 여성운동도 등장시켜, 1898년에는 서울의 양반 부녀를 중심으로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찬양회’를 설립하기도 했었다.

16) 『매일신보』 같은 신문은 물론 『신여성』, 『삼천리』와 같은 잡지에서 마치 지금의 연예인 기사를 다루듯 김명순의 행적을 기사화하였다. 특히 김명순이 영화 배우 활동을 한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하였다.

17) 김명순은 김기진의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에 바로 대응해 「김기진씨의 공개장을 무시함」이란 글을 써서 『신여성』에 발표하고자 하였고, 1925년 7월 『조선문단』에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소문에 대해 「이성적 변애」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 글 말미에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지만, 이 종류의 인격이랄지가 입으로만 ‘연애’란 것은 비 연애다(이름을 적어내라 해도 불능할 바 아니지만 1인으로 고립한 나를 모든 추한 감정으로 욕한 것을 이를 갈고 있다). 이상의 행동을

한발 더 나아가, 자유연애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글에까지 반영시켰다.<sup>18)</sup> 당시 신여성들에게 여성해방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sup>19)</sup>가 ‘연애가 있는 결혼은 덕(德)이요, 연애가 없는 결혼은 부덕(不德)이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신봉이었던 셈이다. 두 남녀가 동등한 근대적 주체로서 만날 때만이 그 만남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즉 김명순에게 자유연애는 개인의 해방이요, 신여성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명순의 이러한 확고함은 많은 비난을 받게 했지만, 그녀는 미칠지언정 굴복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며 근대이행기의 조선사회를 살아 나갔다.

## (2) 등단과 집필

김명순의 등단은 당시 최고의 문필가로 2인 문단시대를 끌어가던 최남선과 이광수가 실시한 '특별대현상(特別大懸賞)'을 통해 뽑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다. 특히 이광수의 극찬에 가까운 심사평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김명순이란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겼고 그녀의 명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춘(李常春)<sup>20)</sup>군의 「기로」보다도 김명순 여사의 「의

---

한 종류들은 도적질은 능할지언정 연애의 신성한 관문에 서지 못하리라.”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첫 창작집 『생명의 과실』에 실린 「대중없는 이야기」와 같은 글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사람들이 그녀의 ‘실연(失戀)’을 두고 힐난한 것에 대한 반박의 글을 담고 있기도 하다.

- 18) 그녀의 소설의 많은 주인공들이 자유연애를 꿈꾸는 여성이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19) 스웨덴 출신의 여성 사상가로 사회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해방, 억압되어온 여성과 아동의 해방을 주장했다. 『여성운동』, 『아동의 세기』등이 대표적 저서이다. 1910년대 초에 그녀의 책들이 일본에 번역·소개되었고, 일본유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 20) 한영서원(韓英書院)에서 신교육을 받고, 주시경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호는 백야(白夜)이고 개성출신이다.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약 7만개의 어휘를 모아 사전 원고를 작성하여 조선어학회에 기증한 국

심의 소녀」는 가장 이 점에 있어서 특출하되다. 거기는 교훈 같은 흔적은 조금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또 그 재미가 결코 비열한 재미가 아니요, 고상한 재미되다. 이 작품에서 만일 교훈을 구한다 하면 그는 실패되리다. 그러나 나는 조선문단에서 교훈적이라는 구투를 완전히 탈각한 소설로는 외람하나마 내 「무정」과…… 그 다음에는 이 「의심의 소녀」뿐인가 합니다.<sup>21)</sup>

춘원의 말은 자신과 김명순 이전의 소설들은 구소설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김명순의 소설이 구소설을 답습했다면 어떤 전개 형태를 보였을까. 교훈적이고 권선징악적인 특징을 가진 구소설의 서술방식대로라면 「의심의 소녀」는 마지막 장인 5장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야 하며 구구절절 독자에게 교훈을 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철저히 파괴했던 김명순의 소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음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후에 이광수는 현상모집에서 1위를 차지한 이상춘의 소설에 대해선 1942년 『신시대(新時代)』 2월호에 실린 주요한과의 ‘교담록(交談錄)’에서 ‘원고 글씨가 하도 얇전해서 이를테면 글씨로 당선된 셈’이라고 밝힐 정도로 춘원은 「의심의 소녀」를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춘원은 이어서 김명순의 작품이 ‘나중에 창작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고 말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긴다. 그 아쉬움은 춘원이 명백하게 「의심의 소녀」가 어떤 작품을 표절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것과, 후에 춘원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악의적으로 이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김명순을 재단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이용되었다는 것에 있다. 춘원은 물론 초기 근대소설가들의 많은 작품들이 일본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sup>22)</sup>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

어학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1910년대에 소설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고, 유일서관에서 발표한 장편 『서해풍파』는 한국최초의 남극탐험소설로써 2006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재출간되어 주목받았다.

21) 이광수, 「현상소설고선여언(懸賞小說考選餘言)」, 『청춘』, 12호, 1917. 12. 이 글은 같은 달 매일신보에 실린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와 함께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문학론으로 꼽힌다.

22) 김동인의 「배파라기」,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전영택의 「천치? 천재?」와 같은

바 춘원의 발언의도에 대해선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단 이후 김명순은 같은 평양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전영택의 소개로 잠시 『창조』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제 7호에 시 「조로(朝露)의 화몽(花夢)」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이내 탈퇴했고, 이후 『폐허』의 동인으로 활동하나 나혜석의 작품만 보일뿐 그녀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유학길에 올랐던 그녀는 1920년부터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1925년에는 『매일신보』의 여기자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그녀의 첫 창작집 『생명(生命)의 과실(果實)』은 같은 해 4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하게 된다. 이후 김명순은 영화배우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두 번째 창작집 『애인(愛人)의 선물』을 발간<sup>23)</sup>한다. 간행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유는 2002년에야 서지학자 오영식의 의해 그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이 책의 훼손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정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책에 실린 글의 집필 날짜가 1927년이었던 것과 출판사인 회동서관이 1937년까지 책을 출간했던 것을 근거로 1927년에서 1937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24)</sup> 이후 창작활동이 뜸 하던 김명순은 1939년 그의 마지막 발표작인 시 「그믐밤」을 『삼천리』1월 호에 발표하고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후 그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영택이 쓴 소설 「김탄실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녀가 동경의 청년 회관 뒤뜰의 담장에서 스무 살 가량의 아들과 살다가 일본 청산뇌병원에 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치요는 20세가 되던 1891년(메이지 24년) 소설 「마른 참억새꽃」을 집필하면서 소설가로써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21세부터는 지속적으로

---

작품도 일본 작가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步)의 「여난(女難)」, 「소녀의 비애」, 「春의 鳥로」부터 각각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되어지며, 당시 접할 수 있었던 문학이 일본문학, 혹은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문학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필요악이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3) 서정자, 「자료: 김명순의 창작집 ‘애인의 선물」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24) 위의 책, 385쪽.

작품을 쓰고 발표하는데,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94년 말의 일이었다. 이치요는 12월에 소설 「선달 그믐날」을 『문학계(文學界)』24호에 발표하고, 그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중편 「키재기(たけくらべ)」를 1895년 1월부터 1896년 1월까지 『문학계』에 7회에 걸쳐 연재한다. 처음 「키재기」를 발표했을 때는 지식인들이 주로 보는 『문학계』의 잡지특성상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후에 대중적인 잡지인 『문예클럽(文藝俱樂部)』에 일괄 게재가 되면서 단번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의심의 소녀」가 김명순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이라면, 이치요에게는 바로 「키재기」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이었다. 「키재기」는 당시 일본문단의 신과 같은 존재인 '모리 오가이(森鷗外)<sup>25)</sup>'의 극찬을 이끌어 낸다. 모리 오가이는 고다 로한(幸田露伴), 사이토 료쿠우(齋藤緑雨)와의 『키재기』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설령 내가 이치요를 숭배한다고 비웃을지라도, 그녀에게 진정한 시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sup>26)</sup>

이들은 「키재기」의 필체가 특히 아름답고 풍속묘사가 뛰어나며, 영혼이 깃든 듯한 인물묘사가 읽는 이에게 비련을 느끼게 하고, 추한 대상을 다루면서도 그 속에서 미적인 예술을 이뤄냈다고 평가한 끝에 모리 오가이의 극찬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맹랑하게도 25세의 이치요는 이 삼인의 평가에 대해 기뻐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그녀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현재 문단의 신이라 불리는 모리 오가이가……‘작품 중의 몇 구절을 대어섯 자식은 현재 활동 중인 비평가나 작가들에게 기술향상

25)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1922). 일본의 신문학 개척기에 일본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였다. 평론집, 역사물 등 다방면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26) 키재기評, 「삼인잡담(三人冗語)」, 『깨달음(めさまし草)』, 1896, 4.

의 인사로 보게 하고 싶다’……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심중팔구는 내가 여자인 것이 놀랍고, 희귀해서 모여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 볼 것도 없는 것을 책으로 써놔도 곧 현대의 세이 쇼나곤이라는 등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추켜세워 주는 것이다.<sup>27)</sup>

이 글은 그녀의 1896년 5월 2일자 일기의 일부분이다. 이치요는 당대 최고의 평론가의 극찬에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영화로운 것은 덧없다’고 적으면서 일부에선 좋지 않은 비평이 실리고 있음을 한 편으로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그녀의 뛰어난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당시 남자의 영역이었던 곳에 여성작가가 뛰어든 것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하다는 이치요의 생각은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메이지시대에는 흔히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치요가 ‘최초’라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 전업작가가 일반화되고 남성의 지위를 본격적으로 위협했다면 이러한 극찬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치요는 모리 오가이의 격찬을 받은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절망적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그해 가을, 동경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으나, 가망이 없다는 확신을 받았을 뿐이었다. 1896년 11월 23일, 이치요는 결국 어머니와 동생 구니코를 남기고 사망한다. 공교롭게도 1896년은 한국에서 그녀와 닮은 꼴 행보를 보였던 여성작가 김명순이 태어나던 해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근대여성 작가인 나혜석과 김일엽이 태어난 해이기도 했다.

이처럼, 몰(歿)과 생(生)을 이어간 이치요와 김명순의 등단과 집필과정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양국의 최고의 문인이었던 모리 오가이와 이광수의 극찬을 받으면서 문단에 등장했고, 여성으로서 당시 남성중심의 문단에서 남성작가 이상의 수준을 인정받은 유일인<sup>28)</sup>들이었

27)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 북스토리, 2005, 178-179쪽.

28) 김동인은 1941년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에 글을 쓰는 여인들이 그

다. 집필의 과정도 이치요가 1895년부터 시작된 ‘기적의 14개월’이란 집필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김명순은 1925년 4월 첫 창작집인 『생명의 과실』을 낸 전후의 약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전체작품의 7할 가까이 생산해 냈다. 그녀가 56세까지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집필기간 역시 ‘기적의 2년’이라 칭할만한 시간이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남성작가들로만 구성된 동인지에 영입제안을 받는 최초의 여성소설가이기도 했다. 이치요는 고다 로한(幸田露伴)으로부터 동인지 성격이 강했던 『깨달음(めさまし草)』의 멤버로의 영입제안을 받았고, 김명순은 전영택의 제안으로 『창조』와 『폐허』의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동인들로부터 필요에 의해 가입제약이 취소되거나 타의에 의해 탈퇴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닮아 있다.

### (3) 주변인으로 강제되었던 삶

이때에는 여자로 글쓰는 사람이라곤 새벽 하늘에 별처럼 드물었다. 또 하나 김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잡지도 하노라고 하지마는 그는 창작의 소질은 없는 사람ियो, 오직 명순이 한 사람이 택함을 입을만 하였다. 아직 미성품인 김명순을 서둘러서 동인으로 넣은 것은 이때에 본국에서 『문예』에 뒤이어 나온 『신조(新調)』라는 잡지 측에 끌려가거나 아니할까 하는 기우에서 나온 원인도 있지만은 Y의 누이동생의 소학 동창으로 그의 자라온 환경도 알지마는 문학을 하게 된 동기와 내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sup>29)</sup>

이는 전영택이 『창조』의 멤버로 김명순을 끌어들이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창조 동인들은 김명순이 다른 동인지에서

---

사이 꽤 많이 난 가운데서 기분이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고 있는 유일인이 그였다.……붓도 상당히 세련된 솜씨였다. 조리의 기능도 상당하였다. 말하자면 여류로서 어떤 레벨까지 올라갔던 유일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29) 전영택, 김상배 편, 「김탄실과 그 아들」,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솔비, 1981, 113-114쪽.

그녀를 먼저 선점할까 걱정할 정도로 그녀의 글쓰는 능력과 상징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조』7호에 김명순의 「조로(朝露)의 화몽(花夢)」이 실리고 그녀에 대해 극찬의 글<sup>30)</sup>을 올렸던 그들은 바로 다음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싣는다.

망양초 김명순양은 8호부터는 우리 글벗이 아닙니다. 보고하는  
결에 깃분 소식을 여러분의게 알게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 유일의  
화백인 김관호·김찬영 양군과 또 시인으로 역시 소개자로 유망한  
안서 김억군은 작년 8월부터 우리 글벗으로 되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시다.<sup>31)</sup>

바로 전호에서 김명순을 극찬하였던 것과 달리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김명순을 탈퇴시켰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사실 위 글에는 이미 왜 김명순이 동인을 탈퇴해야 했는지에 대한 해답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김찬영(金讚永)의 영입이다. 김찬영은 일찍이 김명순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평양 출신의 재력가였던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차 없이 그와 불편한 관계였던 김명순을 배제시켰던 것이다. 남성중심의 『창조』 동인들에게 김명순은 그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역량과 재능, 상징성 따위는 여성이라는 존재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던 셈이다.

로한씨는 흰 피부에 목 가슴 부근이 빨강고, 키가 작았지만, 다소  
몸집이 있어 보였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중후하게 들렸는데,  
대단히 조용조용 말씀하셨다.

“『깨달음(めさまし草)』<sup>32)</sup>잡지에 소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작

30) “양은 불꽃는 듯한 열정과 흐르는 듯한 예술적 천분이 있어서……”라는 문구로 그녀의 동인 입성을 알리고 있다.

31) 『창조』, 제8호, 1921, 115-116쪽.

32) 1896년 1월 모리 오가이가 창간한 문예잡지로 1902년까지 발행되었다. 주로 모



품을 하나 주세요. 그걸 부탁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다.<sup>33)</sup>

이글은 이치요의 1896년 7월 20일자 일기의 내용이다. 당시 『깨달음』의 동인이었던 고다 로한(幸田露伴)이 직접 이치요를 찾아 잡지에 실릴 작품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이 요청은 동인으로의 영입을 의미했다. 이치요는 이날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각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7월 22일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는 영입제안을 거절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사이토 료쿠우(齊藤綠雨)’가 방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 『깨달음』에서 이치요 님의 작품을 가지려 하는 것은 실제의 원고가 아니라, 이름을 우리들 동인에 넣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깨달음』의 동인이 되는 것에 승낙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문을 열려면 새로운 사람에게 열어야만 한다고 나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묻기에 나는 이치요님을 지목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지, 저의 본심은 아니었어요.……어쨌든 『깨달음』의 동인이 되는 것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떡하든 말리려고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치요 님을 위해, 저를 위해, 서로 속을 털어놓자는 겁니다.<sup>34)</sup>

료쿠우는 자신의 입으로 이치요의 영입을 제안해 놓고, 그것이 실언이었다며 이치요의 동인 가입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치요는 이에 대해 “내가 이 남자의 심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세상 사람들 평판에…….”<sup>35)</sup>라고 적고 있다. 이치요는

---

리 오가이, 고다 로한, 사이토 료쿠우 등의 문예비평을 주로 실었다.

33)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위의 책, 191쪽.

34)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앞의 책, 193-195쪽.

35)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앞의 책, 195쪽.

자신이 유명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있지도 않은 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깨달음』의 동인들이 가만히 있던 자신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모습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김명순이나 이치요 모두 자신들이 동인의 가입을 원한 적이 없었음에도 남성작가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영입을 제안 및 확정 해 놓고, 필요에 따라 영입 결정을 취소하거나 강제 탈퇴시킨 것이다.

당시 김명순과 이치요는 마치 자신들은 자의식이 없는 주변인으로 강제되는 상황에 몹시 당황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김명순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폭로해가며 비난했던 김기진, 김동인<sup>36)</sup>과 같은 남성들에 의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다. 자신들의 잉여성을 철저히 숨기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예술가로 치부하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열등의식을 숨기면서 그들 자신이 주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작가들을 주변인으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자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비교적 여류작가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광수<sup>37)</sup>와 같은 인물마저도 그들의 기류에 편승하게 만들었고 김명순은 조선사회에서 우두커니 혼자 남은 고립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는 이치요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점차 명성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만드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신경이 예민해 있었음을 그녀의 일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김명순과 비교해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5세로 요절한 이치요가 만약 죽지 않고 집필 활동을 계속했다면 김명순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음을 상상하는 것은

36) 김기진은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이란 글을 1924년 11월 『신여성』에 게재하여 인신공격에 가까운 인물평을 전개했으며, 김동인은 「김연실전」을 통해 김명순의 모습을 시종일관 비하하고 있다.

37) 이광수는 김일엽에게 허구치 이치요(桶口一葉)의 이름을 따서 ‘일엽’이란 이름을 지어줬으며, 나혜석 오빠인 나경석의 친구로 나혜석이 이혼당시 중재에 나설 정도였다. 이는 김동인이 쓴 「김연실전」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현모양처론을 주장하는 등 근본적으로 여성의 편에 서지는 않는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쩌면 이치요로서는 여성작가로서 싸워야할 벽을 느끼기도 전에 삶을 달리했다는 자체가 다행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김명순은 고스란히 그 벽에 갇혀 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했고,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 속에서 어쩌면 그녀의 신경쇠약과 우울증은 예고된 수순이었을 것이다.

#### (4) 글에 투영된 자아

김명순의 처녀작 「의심의 소녀」는 주인공 ‘가희’의 표랑이 중심내용인 작품이다. 그 줄거리는 단순하다. 소녀의 어머니가 아버지인 조국장의 난행에 불행을 느껴 스물 넷의 나이에 자결하고 소녀는 외할아버지인 황진사와 함께 조국장의 첩을 피해 손녀를 데리고 이 곳 저곳을 떠돈다는 내용이다.

그 외조부 황진사는 조국장의 첩이 그 충애를 한 몸에 감으려고 하는 간책(奸策)이 두려워 가희와 함께 가없는 표랑의 객이 되었다. 어느 때에나 표랑객인 가련한 가희에게는 춘려양일(春麗陽日)이 돌아올 것인가…….<sup>38)</sup>

이처럼 소설말미에 김명순은 직접적으로 ‘표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가희의 봄날을 이야기 한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표랑 중의 기다림은 쓸쓸함 그 자체이다. 구소설의 특징인 권선징악의 뻔한 결말과 필요이상의 과장과 경탄이 빠진 담백함이 특징인 이 소설은 가희와 황진사의 표랑을 담담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담담함이 주는 차분함은 잔잔한 수면위에 투영된 작가가 여실히 보일 정도이며 그 너머에는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치요도 더불어 있다.

김명순은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인물이다. 일찍이 생부로부터 외면당

---

38) 김명순, 김상배 편, 「의심의 소녀」,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 134쪽.

하고, 사랑하는 남자들에게 버림 받고, 심지어 비난 받았던 그녀가 의지하고 돌아갈 곳은 마땅히 없었다. 갈 곳 없이 표랑해야 하는 그녀가 바로 ‘가희’였던 셈이다. 가난에 지쳐 떠돌며 지인들의 집에 식객으로 머물며 살던 김명순과<sup>39)</sup> 아버지가 죽은 후 겨우 17세에 가장이 된 이치요가 가난 때문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이사했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닮아있다. 첩이 자신을 이유 없이 힐난해도, 또 봄날이 언제쯤 올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표랑하는 배의 선미를 단단히 부여잡고 곳곳이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가희의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열중했던 두 사람의 삶과 일치한다.

반면 이치요의 중편 「호린 강(にこりえ)」에서도 주인공 리키를 통해 투영된 두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호린 강」은 유곽의 창부를 주인공으로 삼고, 주인공의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전 일본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작품이다.<sup>40)</sup> 특히 가난 때문에 유곽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치요의 사실적 경험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근대소설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술집인 ‘기쿠노이’에서 가장 젊고 예쁜 창부인 리키는 돈으로 모든 것을 정의 내리는 여자이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연애도 가능한 그녀에게,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들은 그저 돈주머니를 찬 인형과 마찬가지로 다룬다. 리키의 옛

39) 김동인이 1941년에 매일신보에 실은 글을 보면 김명순의 종적이 사라지기 전 이동원의 집에서 식객으로 지냈다고 말하고 있으며, 1957년 12월 ‘폐허 동인시절’이란 주제로 당시 문인들이 좌담한 글을 보면, 이병도의 집에도 불쑥불쑥 찾아와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했던 김명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쩌면 그녀가 동거했다고 의심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그저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녀의 표랑에서 기인한 지도 모른다.

40) 1895년 초의 일기를 보면 「호린 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작년 가을에 가벼운 마음으로 쓴 「호린 강」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호평을 받았다. 그랬지만 너무나도 성가실 정도로 많은 평론에 진담이 난 기억이 난다. “우리 문단이 지난 명치 24, 25년 이래 줄 곳 잠만 자다가, 문단에 꽃을 피우고 춘풍이 한꺼번에 불어 전성을 이룬 것은 모두 이치요의 작품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입으로 말하는 자도 있었다.”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 북스토리, 2005, 170-171쪽.

애인이었던 겐시치는 동네 유지였지만 많은 돈을 리키에게 쏟아 붓고는 공사장 인부로 전락했다. 리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는 겐시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애인도, 웃음을 줄 손님도 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지만 차갑게 대하는 겉모습과 달리 자신을 ‘승냥이’라고 말하는 겐시치의 아들 ‘요타로’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리키는 그녀의 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일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 그렇다간도 가끔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슴에 쌓여간다. 그런 것은 울음으로 풀어낼 수 밖에 없다. 사람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다. 울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층 객실 좌석에 몰래 들어가 우는 것이다.<sup>41)</sup>

이 글은 리키가 창부가 된 후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작자인 이치요와 김명순의 심리와 연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치요가 자신의 심리를 글에 녹여냈을 거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울보로 유명했던 김명순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것이다. 『신태양』 7권 2호에 실린 「폐허 동인시절(좌담)」을 보면 이병도(李丙燾, 1896~1989)가 얼마간 자신의 집에서 기거했던 김명순이 자주 울었다고 증언하자 함께 이야기하던 변영로(卞榮魯)가 ‘나도 우는 것을 몇 번 보았어’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명순이 자주 울었다는 것은 다른 자료들에서도 증명되는 사실인데, 『개벽』 제 4호의 「여기자 군상(女記者 群像)」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명순이 자신의 기사를 고치려하면 원고를 박박 찢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그녀가 신경쇠약과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김명순은 스스로도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음을 진단하기도 하는데 「탄실이와 주영이」에서는 “일시로 정신이상까지 될” 정도였다고 서술되기도 하고, “그 모친은 그의 우울증이

41)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나 때문에』, 북스토리, 2005, 167쪽.

도져서 그래지는 것이라고”<sup>42)</sup>라는 대목도 찾을 수 있다. 남성들이 자신을 주변인으로 치부했지만, 자의식이 강했던 그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울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치요는 어땠을까? 이치요가 우울증을 겪었다는 대목은 없지만 그녀가 자신의 일기에서 지속적인 우울감을 표시했다는 대목들과 그녀가 극심한 두통환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여기저기 병이 나고 특히 두통이 심하고 어깨가 심하게 부어오를 때가 있다.<sup>43)</sup>

위의 글은 1891년 6월의 쓰여진 일기이다. 이치요는 이때 20세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샷바느질과 세탁일을 해서 연명해 가던 시절이었다. 이후의 일기를 보면 이치요가 지속적인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구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없었던 병이 갑자기 생긴 것에 이치요는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모습은 리키의 모습에도 투영되어 있는데, 「흐린 강」 곳곳에서 리키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리키의 두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한 남자에게 구속되긴 싫어요. 하지만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사모의 정에 견딜 수 없겠지요.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처 없이 떠다니죠.<sup>44)</sup>

이 구절에서 리키의 강한 자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강한 자의식은 이

---

42) 김명순, 김상배 편, 「탄실이와 주영이」,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 188쪽.

43)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 북스토리, 2005, 48쪽.

44)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나 때문에』, 북스토리, 2005, 175쪽.

치요와 김명순도 마찬가지였다. 리키는 평생을 표랑해야 하는 「의심의 소녀」의 주인공 가희의 모습과 닮아있고,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반기를 든 김명순과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sup>45)</sup>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감정에 힘들어했던 이치요와 닮아있다. 이는 결국 네 사람이 하나인 것과 다름없음이며, 이치요의 두통의 원인이요, 김명순의 신경쇠약의 원인인 것이다.

누군가의 집에서 모두 모였을 때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978?-1016?)<sup>46)</sup>와 세이 쇼나곤(清少納言, 966-1017)<sup>47)</sup>의 우열을 논한 적이 있다. ……세이 쇼나곤은 정말 측은한 사람이다. ……모든 여자는 인간은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라 확실한 후견인도 없고 해서 그대로 영락하고 말았다. ……세이 쇼나곤은 자기 독자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뒤 행동에 옮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쇼나곤 쪽은 자존심은 강한데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해, 언동을 통해 나타내지 않는 한 아무도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의 높낮이가 심한 사람이어서……쇼나곤이 애석하다는 건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올 수 있겠지만, 덕이란 것은 노력하고 키우는 것이다. ……쇼나곤이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의 잣대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쇼나곤에게 몰려든 남자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그녀를 ‘여성’으로 서만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찍부터 여성이라는 입장을 떠난

45) 1891년 4월 이치요는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당시 아사히신문사 기자 겸 전속 작가였던 ‘나카라이 도스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소설작법을 배우게 된다. 1년 후에는 도스이가 이끌던 잡지 『무사시노(武蔵野)』에 처녀작 「여덟속의 벚꽃(闇桜)」을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 도스이와의 염문설이 나돌자 이를 경계하며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치요의 일기 속에는 그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46) 교토 출생. 많은 문학가를 배출한 명문가문에서 태어나 일본문학사상 고전인 『겐지 이야기』를 썼다.

47) 헤이안 시대 일본의 여성 작가. 42수의 소규모 가집(歌集)이 전한다.

사람이라 평생 동안 남편도 자식도 없었던 것이다. ……시키부의 인  
덕이 쇼나곤보다 낫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나곤을 나쁘  
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그래서 “쇼나곤에게 시키부 만큼의 재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일이다.”<sup>48)</sup>

이 글은 이치요가 24세가 되던 1895년 2월의 어느 날<sup>49)</sup>에 쓴 일기로,  
‘하기노야’의 수업에서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여류작가 2명을 두고 논  
했던 날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쇼나곤보다는 시키부  
가 더 낫다고 말하지만, 이치요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쇼나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성품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우열을 가르고 있단 판  
단 하에, 재능을 타고 났지만 아무 곳에도 기댈 대가 없던 쇼나곤을 두둔  
했던 것이다.

이치요의 이런 논지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찍이 자신을 믿고 후원했던 아버지<sup>50)</sup>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야 했던  
이치요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글을 써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쇼나  
곤의 인생살이에서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치요의  
글은 마치 자신의 후대 사람인 김명순을 두둔하는 글처럼 보인다는 사실  
이다. 쇼나곤의 이름 대신 김명순의 이름을 넣어도 그녀의 삶을 아는 사  
람이라면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글의 논리가 서기  
때문이다. 확실한 후견인이 없어 영락을 했다는가, 신여성의 길을 개척해  
야 했기에 아무도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다거나, 자존심이 강하지만 형편  
이 넉넉하지 못해 아무도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가, 감정의 높낮

48)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위의 책, 148-151쪽.

49) 이치요의 일기에는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처럼  
달만 기재되기도 했다.

50) 이치요는 12세에 세이카이 소학교 고등과 4년을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여자가 배  
워서 무엇하냐는 어머니의 반대로 진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딸의 재능을 아까  
워한 아버지는 딸을 가르칠만한 선생을 수소문해서 나카지마 우타코(中島歌子)  
의 ‘하기노야’에 입학시킨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1889년 폐병으로  
사망. 이치요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된다.



이가 심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지없이 이치요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김명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만약 시키부와 쇼나곤에 대한 이치요의 분석을 한국의 상황에 가져온다면 나혜석이란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이 최린과의 염문으로 이혼을 당하기 전까지, 아마 나혜석은 한국의 시키부이고, 이치요는 한국의 쇼나곤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든든한 가문과 외교관인 남편의 후원을 입은 나혜석은 남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도 김명순에 비해 받는 비난은 한정적이었다. 어쩌면 나혜석은 교육받은 신여성의 본분, 즉 조선의 미래가 될 네 아이의 어머니자, 한 남자의 아내로써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혼을 한 이후, 그녀는 김명순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했다. 이혼 전까지 자신의 그림에 호의적이던 평론조차 악의적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고립감을 가졌을 것이다. 결국 행려병자로 객사했던 그녀의 삶은 김명순보다 나을 것이 없던 고단한 인생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치요가 시키부와 쇼나곤을 분석한 일기의 내용은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근대이행기의 여성작가들이 겪어나갔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결론

일본의 1890년대와 한국의 1910년대는 근대이행기에 속하는 시기로써, 문학에서는 구소설적 형태에서 탈피하고 전대 문학의 계몽적 교훈주의를 극복하여 현대성을 확립하던 시기였다. 김명순과 이치요는 이 시기에 남성작가들의 작품 이상의 수준작을 선보이며 양국 최초의 근대 여성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얻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처했던 시대상황은 그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형식상으로는 여성해방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여권신장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여성들에게는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일꾼들의 어머니와 아내로써의 역할이 강요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등장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여성작가의 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기도 했다.

당시 김명순은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이광수의 극찬을 받고 문단에 등장했으며, 이치요 역시 문단의 신이라 불렸던 모리 오가이의 호평 속에 등단하게 된다. 김명순이 이치요가 숨지던 해인 1896년에 태어난 만큼 시대상으로는 선후가 분명한 두 사람이었지만 두 작가가 양국의 문단사에서 겪은 일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의 극찬을 받으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양국의 여성작가 중에서 남성과 평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인정받은 유일인들이기도 했고, 최초로 원고료를 받고 소설을 게재한 여성작가이기도 했다.<sup>51)</sup> 또한 ‘기적의 14개월’, ‘기적의 2년’이라 불릴만한 집중적인 집필시기를 거쳐 대표작들을 쏟아낸 것과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그리고 사회적 억압이 유발한 표랑하는 듯한 삶을 살아간 것도 유사한 점이다. 특히 남성작가들만 참여하던 동인지의 영입제안을 받은 최초의 여성작가들이기도 했고, 이어 벌어진 영입거부와 강제탈퇴 사건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우울한 상황을 통감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신진쇠약과 두통으로 대변되는 우울증의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작품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움을 보여준다. 마치 자신들의 옆에서 살아간 상대를 그려내는 듯한 모습은 도플갱어를 떠올리게

51) 김명순의 경우, 그녀가 「의심의 소녀」로 『청춘』의 ‘특별대현상(特別大懸賞)’에서 당선하면서 상금을 원고료로 받았다. 김명순이 당시 2위였는지, 3위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등 10원, 2등 5원, 3등 3원의 상금이 걸려있었던 만큼 상금을 원고료로 받았던 사실은 변함없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신소설의 책 한 권의 값이 15전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그리 적은 원고료는 아니었던 셈이다.

할 정도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이치요가 일본의 현대사회에서도 각광받는 존재가 되어있는 것과 다르게 김명순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밖에 존재하고 있다. 한일양국의 근대이행기의 양국 최초의 근대여성소설가로서 두 사람이 가졌던 의미와 존재가치가 같았음에도 김명순은 그녀에 대한 왜곡된 근거들로 구성된 연구자료들의 지속성으로 인해 죽어서도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그녀가 작가로서가 아니라 근대이행기의 유명한 스캔들의 여주인공으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인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전영택이 ‘한국의 신문학이 싹틀 때에 여류시인으로, 한국이 낳은 불행한 시인으로 태어났던 김명순은 변변한 작품 한편을 남기지 못하였다’<sup>52)</sup>고 말했던 논지가 유지되는 듯하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30년 넘게 1981년에 김상배에 의해 간행된 김탄실의 전집 이후에 이를 보완한 전집 발간이 미루어져 있던 상황에서 새롭게 엮은 전집들이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 김명순의 시와 희곡만 묶인 『김명순 전집』<sup>53)</sup>이 나오는데 이어 2010년 12월에는 서정자를 통해 김명순의 모든 작품이 수록된 『김명순 문학전집』이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명순 문학전집』<sup>54)</sup>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김명순의 두 번째 창작집인 『애인의 선물』의 수록작품도 빠짐없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김명순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평론이나 연구자료가 아닌 김명순의 작품 자체를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치요와 김명순의 비교 연구 역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52) 전영택, 「내가 아는 金明淳」, 『현대문학』, 1963. 2, 251쪽.

53) 김명순, 맹문재 편, 『김명순 전집』, 현대문학, 2009.

54) 김명순, 서정자, 남은혜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1. 기본자료

김명순, 김상배 편, 「김탄실과 그 아들」, 『김탄실, 나는 사랑한다』, 솔피, 1981.

김명순, 맹문재 편, 『김명순 전집』, 현대문학, 2009.

김명순, 서정자, 남은혜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나 때문에』, 북스토리, 2005.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역,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 북스토리, 2005.

히구치 이치요, 이상경 역, 『키재기』, 생각의 나무, 2002.

## 2. 참고자료

김기진, 「김명순 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 11.

김정자, 「김명순 문학의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 연구』, 제2권 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0.12

김윤식·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16쪽.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문미령, 「김명순 문학연구: 근대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의 양상 및 의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서정자, 「나혜석 연구: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서정자, 「자료: 김명순의 창작집 『애인의 선물』」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임종국·박노준, 「김명순 편」, 『홀리간 성좌 3』, 국제문화사, 1966.

전영택, 「내가 아는 金明淳」, 『현대문학』, 1963.

정영자,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최명표, 「소문으로 구성된 김명순의 삶과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30집, 2007. 04.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ABSTRACT〉

Comparative Research on Both Country's First  
Woman Novelist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Times of Korean and Japan

Hyun-joon, Lee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includes the comparative research on Kim, Myeong-soon and Higuchi Ichiyo who gained the title of the first modern woman novelist in the midst of the transition toward modern times of Korea and Japan. At that time, the situation of the times facing two women novelists was not so friendly to these two women. There formed a discourse on women's liberation on the surface, but behind it was still maintained a male-dominated society. Particularly to women, it was the period that put emphasis on the role as a mother or a wife of the children who would shoulder the future of their homeland and workers.

Nevertheless, like the case of Kim, Myeong-soon and Ichiyo, the emergence of the women who tried to tide over the contradictions in society and the appearance of a woman writer who tried to express such contradictions in language were also the stream of history that couldn't be rejected at all. In such a stream, Kim, Myeong-soon and Ichiyo came to start their literary career amid the extollment from the greatest writers of the day. Though there existed a distinct difference in the period order between the two persons, the

experiences they went through in the history of literary circles were amazingly similar in so far as they were placed in the sam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both countries' transitional period toward modern times.

Particularly, they were also the first women writers who were offered a proposal for recruitment by a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which only the men writers used to participate, and through subsequent happenings of recruitment rejection and compulsory withdrawal, both women had to strongly feel their own gloomy situation where they couldn't but be marginal women in the androcentric society. Such overwhelming common points shown in the life and works of the two writers, who lived in separate time zone and space from each other, might be said to be the starting point and also the final point of destination of this study.

**Key words** : Kim, Myeong-soon, Higuchi Ichiyo,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Times, Modern Novel, Modern female novelist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8.10
--